

분류	산업선교
제목	OMC시대의 전도자의 삶 실현(4)- ONENESS 전쟁
성경	로마서 16:17-20
일시	2012년 2월 4일
장소	예원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 서론

▶여러분이 롬16장을 보시면 20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온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7-20절이다. 여기에 지금 각 별명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한다.

▶만약이지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유다도 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중직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했다.

▶그렇다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중직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는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oneness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없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의 기준은 oneness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한 가지가 지금 사탄은 완전히 oneness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교회는 거의 지금 oneness 상태가 되어 있다. 교회는 oneness가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사탄은 완전히 oneness가 되어 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이 뜨여야 하는가? 결국은 oneness전쟁이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되었거나 중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oneness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이익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생각할 이유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예언하시기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마24장, 25장에서 연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이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oneness가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우고 증거해도 oneness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oneness가 안 되고 oneless가 되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눈을 뜨고 잘 보셔야 한다. 정말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탄의 oneness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분들이 기도응답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 모임에 오지 말라고 해도 생명 걸고 올 것이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는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RUTC를 만들고 건축을 한다고 하면 한 부분을 땀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OMC, 산업인, 중직자 모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1. 노력x

▶여러분이 성경을 쳐다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

(1)창12:1-10

▶대표적인 예로 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질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브라함은 사탄의 oneness를 못 본 것이다. 왜 갈대아에서 나오라고 했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를 사실상 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온 것이다.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진짜 걸단 내려야 한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니깐 옛날에 남의 집에서 무화과 따먹은 그런 것을 회개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 내가 거짓말 한 것을 회개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신다. 저는 노상 거짓말을 하는데 말이다. 길 가다가도 거짓말을 한다. 길 가는데 누가 따라오기에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 예원교회 교인이었는데 나보고 식사 하셨느냐고 하더라. 단번에 식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안 그러면 또 식사하러 가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위에 돌아다니면 예원교인 진짜 많이 만나는데 조심해서 다닌다. 제가 식당 골목 들어가면 주차요원들이 다 예원교인이더라. 저 보신탕 골목으로 돌아가면 앉아있는 사람이 예원교회 집사다.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드시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것을 사실상 못 본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 여러분이 진짜로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전도는 그 뒤의 것이지, 하나님은 교회 부흥시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정말 눈 뜨는 날, 사탄의 oneness를 보는 눈을 떠버리면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 진짜 눈을 뜨고 보라.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다. 그러니까 왜 oneness해야 하는가에 대해 눈을 떴으니 사실상 사탄의 oneness를 못 봤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걸 못 봤다는 말은 내 상태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와 교회와 상관없이, 복음과도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자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성령의 인도가 되어질 수 없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성령의 충만이 되는가?

♣ 교재 자료 ♣

♣ 성경 말씀 (로마서 16:17-20)

-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아무리 노력해도 응답 없었던 사람들(예)

- (1)창12:1-10
- (2)출3:1-8
- (3)왕상19:1-20
- (4)행11:1-18

2.반드시 3가지를 내 것으로 찾을 때 오는 응답

- (1)교역자의 바른 정체성(빌3:1-21)
- (2)중직자의 바른 정체성(행6:1-7, 롬16:1-27)
- (3)렘넌트 운동의 바른 정체성
  - ①삼상3:19, 삼상7:1-15
  - ②왕하6:8-24
  - ③행17:1, 18:4, 19:8

3.ONENESS 전쟁

- (1)사탄의 ONENESS
  - ①종교 장악
  - ②문화 정복
  - ③경제 주도
- (2)교회의 ONELESS(롬16:17-20)
- (3)복음 ONENESS 되는 날 응답 정도가 아닌 시대 변화
  - ①출3:18-20, 수3:1-13, 수6:1-20
  - ②행2:1
  - ③롬16:1-27

(The end)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다. 평생 사는 동안에 욕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성령의 인도는 절대 안 받는다. 그러면 목회 안 된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렇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상은 사탄의 oneness를 못 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원과 관계있지 않겠는가 싶다.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DNA인데 구원과 관계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oneness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이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 많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것이 훈련이 아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훈련이 맞는데 훈련이 아니고 oneness이다. 세계에서 여러분 밖에 없다.

그래서 눈을 한 번 번쩍 떠보라. 램넨트 대회, 램넨트 모임도 우리밖에 없다. 벌써 램넨트라는 말을 쓰는 데도 없고 램넨트 대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을 갔더니 대만에서 하는 말이 대만의 램넨트들은 한국의 램넨트 운동과 너무 멀어져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램넨트 운동의 영상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 선교사님들이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러면 램넨트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니까 메시지를 안 내보내니 메시지를 못 들어 답답해 죽는 것이다.

▶oneness 전쟁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실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본인이 알다. 저는 사탄의 oneness를 깨닫고 oneness를 깨닫는 날로부터 사실은 모든 부분에 응답이 다 왔다.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할 정도다.

왜냐하면 제 수준 가지고는 부산의 우리교회에서 하고 있던 훈련을 밖으로 못 빼낸다. 빼내겠는가?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교회 안에 이익이 될까 안 될까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데 빼낼 수 있겠는가? 그때는 전국에 조직이 없었다. 합숙을 하면 모든 예산이 임마누엘 교회로 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제가 본부로 빼냈다. 그래야 사람들을 관리하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란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제 인격으로 볼 때 그게 기적이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보면 말은 안 해도 개인의 이익에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 안 보려고 한다. 그런데 oneness를 봐버리면 그게 너무 쉬운 것이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응답이 온다.

(2) 출3:1-8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뭔가가 안 된다. 여러분이 뭔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모세가 얼마나 배우고 좋은 위치에 있었는가? 그런데 안 되는 것이다. 참 어리석게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oneness 전쟁을 못 본 것이다. 지금 자기가 애굽에 있다는 자체가 사탄의 oneness에 잡혀있는 것이다.

▶사실상 모세에게 이게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신경질이 나서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러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도 사실은 못 본 것이다. 그런데 호렙 산에서 듣게 된 것이다. 그때야 모세가 내가 너무 늙었다고 불신앙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좋은 시절을 다 보내버렸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상 모세와 하나님이 통한 부분이 oneness가 통한 것이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 그건 어마어마한 역사와 믿음으로 했던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을 본 것이다.

(3) 왕상19:1-20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보인 엘리야도 사실상 사탄의 oneness를 제대로 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종아 지금 7천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다. 너만 남았다고 말하는데 7천명이 남아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제자가 7천명이나 숨겨져 있다. 우선 리더부터 찾아라. 그래서 찾은 게 엘리야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라.

(4) 행11:1-18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행11:1-18절의 지금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라. 행11장의 내용을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다. 어찌 주의 종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 이게 지금 깨달아진 것인가? 아니 어찌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고 했던 말이다. 그 말뜻이 뭔가 하면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전통인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힘들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사실상 족대를 옮기셨다. 사실상 옮겼다.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간단하다. 여러분이 오늘 한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 거의 확실하다.

2. 정체성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가? 반드시 세 가지 내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나온다. 이걸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낙심했었을 일이 아니다. 사탄이 oneness하고 있는데 내가 낙심하는가? 여기에서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 사탄이 oneness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그러고 있을 때인가? 사탄은 지금 oneness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사탄이 완전히 oneness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시험들 시간표인가 말이다.

그러면 이 눈을 뜨고 나면 목사님이 잘못했든 장로님이 잘못했든 상관없다. 내가 할 게 딱 보인다.

(1) 교역자(빌3:1-21)

▶이걸 제대로 봐버리면 우리 교역자 정체성이 생긴다. 어떤 정체성인가? 빌3:1-21이 보인다. 쓸데없는 가치 없는 배설물을 붙잡고 살았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님에 만날 그것 때문에 살았다. 그놈의 돈이 뭐지 매일 돈돈돈 하면서 산다. 먹고 사는 게 뭐지 만날 그것만 하다가 죽는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전부 기가 찬 내용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루었느냐?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뭐 얻은 것이 있느냐? 아니라고 말했다.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 정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땅에 있느냐? 위에 있는 것을 위하여 간다고 했다. 정말 우리의 신분이 땅에 있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이 나왔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롭이다.

(2) 중직자(행6:1-7, 행16장)

▶이때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이것을 진짜로 봐버리면 중직자 정체성이 보인다. 교회의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인다. 그것이 이제 눈이 열린 것이다. 교회에 문제가 오면 시험드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란 게 느껴진다. 그게 바로 눈을 뜬 사람이다. 벌써 시험 들었다는 것은 이미 눈을 못 뜬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집에 문제가 왔는데 내가 그 집 식구가 맞다면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이혼해야 한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자식 간에도 형성이 안 된다.

▶중직자들이 이 정체성이 보이니까 성령충만, 믿음충만, 지혜충만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롬16장 인물들이었다. 아주 중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회하고 중직자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절대 oneness가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될 수 있는 DNA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oneness를 전혀 못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교회를 다 망가트리버린다. 그렇지 않은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할 게 그것밖에 없다. 어떤 목사는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서울에 그런 사람이 많다. 아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것밖에 할 게 더 있는가? 그리고 막 생을 거는데 이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대 놓고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도망간다.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님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을 정말로 떴다면 내가 뭐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온다.

(3) 램넨트 운동(행17:1, 18:4, 19:8)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눈을 뜨면, 사탄의 oneness를 정말로 봐버리면 램넨트 운동에 생을 걸 수밖에 없다. 이걸 정말로 봐버리면 내 교회는 아니라고 램넨트 운동을 해야 한다. 이걸 정말로 봤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해도 미래를 붙잡게 되어있다. 아니 공통적으로 당장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 나만 되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집에 지금 전염병이 들어오는데 나만 되면 되는가?

저는 옛날에 흥00 여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다 싶더라. 좀 희한한 여자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아주 인제다. 신문을 봤는데 어떤 병든 남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여자가 도망갔다고 한다. 너무 열 받아서 그 집에 청소 해주러 갔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한다. 말쑥한 멋진 여자가 시골에 와서 청소하니까 저 사람이 간첩 아니냐며 창녀가 아니냐며 오해를 받았다. 아이의 엄마가 아니고 부인이 아닌데 그 집에 가서 살았다. 참 특이한 여자다. 그래서 집에서는 미쳤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성공시켰는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을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왜냐? 주위의 환경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뭐부터 했느냐?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부터 먼저 가르쳤다고 한다. 그게 지역을 움직인 학교가 된 것이다. 얼마나 감동했으면 대통령이 불러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간증하기도 했다.

▶램넨트를 안 살리면 우리는 저절로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니까 그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얼마나 중요하게 봤던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시키셨다. 사실상 바울의 관심은 한 군데밖에 없었다. 행17:1, 18:4, 19:8 절, 회당이다. 사탄의 oneness를 진짜로 본 사람이다. 이걸 진짜로 봐버리면 그것밖에 없다.

3.전쟁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상 전쟁에 임하게 된다. oneness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기게 된다.

(1)사탄

▶지금 사탄은 세 가지를 완전히 장악했다. 종교, 문화,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다.

(2)교회

▶놀랍게도 교회는 한 개도 장악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는 날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다.

(3)그날

▶복음 oneness가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응답하신다. 약속드릴 수 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언약 붙잡는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작하셨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행2: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모든 응답을 거기에 다 주셨다. 그게 바로 롬16장 사람들이다.

♣결론 - 단6:10(20-22), 빌4:6-7(감옥), 미래(순교)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응답을 받는 귀중한 날이 되길 바란다.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왜 헌금하시는지 아시니까? 단6:10절에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 죽는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다니엘이 oneness와 사탄의 oneness를 본 것이다. 감사하다 내가 이걸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고 나는 이거 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흑암이 안 무너지겠는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또 성경을 보라.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는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감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역지로 감사해도 감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감사가 아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본 것이다. 이걸 감옥소에서 한 말이다. 내가 감옥소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탄의 oneness를 본 것이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사탄의 oneness를 깨트릴 수가 없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한테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봐버리면 저절로 응답이 오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중직자 분들이 이걸 못 보니 교회가 조그마한 것으로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만날 그러다 시간을 다 보낸다. 아니 중직자는 시험만 들면 되지만 목사님들은 일이 안 되면 최고로 문제가 온다. 솔직한 말로 교회가 안 되면 중직자들은 시험만 들면 된다. 그러나 교역자들은 죽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선교지에서 선교가 안 되면 그 선교사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가 안 되어서 자꾸 무너져보라. 교인들은 사실상 가면 되는데 교역자는 그게 아니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미래다. 여러분이 이걸 못 보면 미래는 아무리 머리 쓰고 몸부림 쓰고 조직을 짜고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게 되어있다. 이걸 본 초대교회는 뭘 했는가? 아예 기쁘게 순교해버렸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다 순교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본 사람은 순교도 두렵지 않다. 이걸 정말로 봐버렸다면, 어떻게 사탄이 oneness되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헌신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지금 모임이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픈 일이다.

왜 감사한 일이나? 지구상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인 것은 여러분밖에 없다.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또 약간 슬픈 일은 뭐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쉽게 말하면 시동을 거는 날이다. 그래서 슬픈 일이다. 진짜 소통은 말 안 해도 통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말로 해도 안 통하면 그건 불통이다. 적어도 사람이 말 안 해도 통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말을 해도 안 통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말 안 해도 통해야 한다.

▶영안이 뭐냐? 전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영안이다. 소통이 뭐냐? 전혀 말 안 했는데 통하는 것이다. 이런 중직자와 산업인이 일어나야 한다. 분명히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눈(oneness)을 뜯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게 되어있다. 놀랍게도 기도 안 한 것까지 응답으로 다 온다. 기도했는데 응답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도 안 했는데 온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짜 응답이다. 저는 이상한 말만 골라서 하는데,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해도 오는 것이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 전국 세계의 중직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란다. 일단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모든 중직자 대학원 모임을 교회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지금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은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목회자를 살려라, 그리고 노회 중심으로 모여라. 그 말은 노회를 살리라는 말이다.

그리고 산업선교 중심으로 모여라. 그게 세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감을 잡으셔야 한다.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최고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산업인들 위에, 중직자들 위에,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중직자 대학원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

(The end)

<b>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b>	
① <a href="http://www.jcking.net">http://www.jcking.net</a> ② <a href="http://www.rutc.com">http://www.rutc.com</a>	
총국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